

2016. 06. 01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16년 5월 31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일자리노동국 창업지원과

창업지원과장	홍순성	2133-5500
창업정책팀장	박복수	2133-5502
담당자	이웅	2133-5505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5매

<2016 서울 일자리대장정 - 도심 제조형 창업 활성화 현장>

# 서울시, 누구든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'디지털대장간' 열다

Seoul opens `Digital blacksmith workshop` where anyone can create products

- 3D프린터·레이저커팅기 등 36종 장비 갖춘 시제품 제작소... 31일(화) 개소식
- 기존 100만원~1,000만원 → 재료비만 부담하면 공간·장비 이용 및 교육 무료
- 침체된 용산전자상가와 일대 연계해 세계적인 도심형 제조 창업공장으로 육성

- 청년창업가부터 자전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동호회 회원, 셀프 인테리어로 집을 꾸미고 싶은 자취생, 의류·패션분야 경력단절여성, 은퇴한 엔지니어까지.
- 누구든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한국판 테크숍(Techshop) '디지털대장간'이 31일(화) 용산전자상가(나진상가 15동 B1층)에 문을 연다.
  - 테크숍은 '06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문을 연 회원제 기반 창업지원 공간으로, 누구나 구상한 것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'꿈의 공장'으로 불리며 미국 전역에 제조형 창업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.

- '디지털대장간'은 작년 10월 일자리대장정 기간 중 박원순 시장이 용산 나진상가를 방문했을 당시 시제품 제작 지원시설을 조성해 서울의 제조형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구체화한 첫 번째 사업이다.
- 산업용 3D프린터부터 대형 CNC머신, 레이저커팅기, 목재절단기, 각종 용접기에 이르기까지 총 36종, 41대의 다양한 장비를 보유한 시제품 제작소로, 국내에서도 이정도 전문장비를 갖춘 시설은 찾아보기 힘들고 미국 테크숍 시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.
  - 이밖에 강성이 강한 가공물을 손쉽게 절단할 수 있는 플라즈마 커팅기, 각 재료에 최적화된 설정값을 산출해 용접이 가능한 TIG용접기·MIG용접기, 플라스틱판을 가열해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진공성형기 등이 있다.
- 기존 전문업체를 통해 시제품을 만들려면 적게는 100만 원대부터 1,000만 원대까지 비용이 필요했지만, 디지털대장간을 이용하면 재료비 등 실비만 부담하고 공간과 장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자본금이 부족한 초기창업가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.
- 아울러, 장비 이용이 서툰 초보자라면 디지털대장간에 상주하고 있는 3명의 전문인력으로부터 제품제작 및 디자인 컨설팅, 장비사용 교육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.

- 시는 '디지털대장간'을 시작으로 국내 최대 전자제품 유통시장인 용산전자상가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가 모여 제품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는 제조형 창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.
- 또, 인근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3D프린터 출력소 '무한창의협력공간', 가상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'VR스퀘어', 그리고 현재 조성중인 반도체 설계·출력 공간인 '마이크로 팩토리'까지 완성되면 이 일대가 세계적인 도심형 제조 창업공장으로 확고히 자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'디지털대장간'은 서울시가 조성하고, 미국 테크숍사의 국내 라이선스를 획득한 N15가 위탁 운영한다.
- 내부는 총 416 $m^2$ (약 127평) 공간에 장비 기능에 따라 4개 제작실(주장비실, 목공실, 용접실, 금속가공실)과 회의실, 교육장 등으로 나뉜다.
-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([www.digital-blacksmithshop.com](http://www.digital-blacksmithshop.com)) 및 오프라인을 통해 멤버십 가입 후 이용할 장비와 시간을 예약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 운영시간은 화~토요일 오전 9시~오후9시다. (문의 전화 02-718-9966, 팩스 02-718-9967)
-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「2016 서울 일자리대장정」의 하나로 31일(화) 16시30분 용산전자상가 나진상가 15동(용산구 청과로 112)에서 박원순

시장을 비롯해 나진산업·N15 관계자와 예비창업가 및 제조형 창업 기업,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'디지털대장간'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
- 박 시장은 개소식 후 4개 시제품 제작실을 둘러보고 이 자리에 참석한 예비창업자와 제조형 창업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제조형 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갖는다.
  
- 박원순 시장은 “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와 시민들이 디지털대장간을 이용하면서 제조창업 문화가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이것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인 창업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“향후 성북구 도전숙,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등 창업가 밀집지역에 시제품제작 지원시설을 추가 조성해 서울을 메이커 스페이스로 만들어가겠다”고 말했다.

# 디지털대장간 개소식

- 일 시 : '16. 5. 31(화) 16:30 ~17:30(60')
- 장 소 : 디지털대장간(용산구 청파로 112, 나진상가 15동 B1층)
- 세부일정

